설계기준 언제 어디서나 접근 OK

– PC 및 스마트폰 홈페이지에 전면 개방 –

KR연구원(원장 이동렬)은 공단에서 관리 중인 철도설계기준 자료를 개인용 컴퓨터(이하 PC) 뿐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검색할 수 있도록 PC 홈페이지(http://www.kr.or.kr) 및 모바일 홈페이지(m.kr.or.kr)를 통해 지난달 25일부터 전면 개방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는 철도 토목 · 궤도 · 건축 · 전기 · 신호 설계 분야에서 국제방식으로 코드화해 적용하고 있는 각 종 지침 및 편람 242종과 제 개정 이력 및 설계기준에 대한 기술정보이다.

또한 이번 정보공개는 정부 3.0 전략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철도기술정보가 필요한 국민들의 정보공개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추진했으며 수동형 공개에서 능동형 공개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정보공개를 통해 철도사업 참여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활용해 고품질의 철도건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공단은 철도사업 참여자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철도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선도하겠다"고 전했다.

연극으로 청렴을 다시 배우다!

기획재무본부는 임직원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달 26일 본사 2층 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청렴딜레마 등 각종 문제를 상황극으로 재연해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상황극은 '진격의 사람들'이라는 공연명으로 청렴 딜레마 상황에서 갈팡질팡하는 주인공의 심리와 의식 변화 과정을 연극으로 표현한 것이다. 임직원들은 자연스럽게 주인공 감정에 이입돼 청렴한 공직생활이란 무엇이며 직장 내에서 청렴한 행동요령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기 쉽게 이해했다.

기존의 강의자 중심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다소 딱딱하게 여길 수 있는 「청렴」이라는 단어를 재미와 감동이 있는 상황극으로 전달해 많은 직원들의 공감을 얻었다.

연극을 관람한 한 직원은 "최근 철도비리 의혹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뼈아픈 수모를 생각하며 깊은 자성의 시간을 가지는 계기가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본부 관계자는 "본사 뿐 아니라 각 지역본부를 순회하며 청렴 연극을 통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청렴생활에 대한 성찰과 청렴다짐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전역사, 더 넓고 더 편리해질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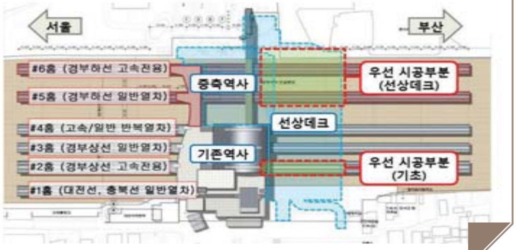
– 1단계 동서연결통로 데크공사 우선 착공 –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는 대전역사 증축계획에 따라 우선 1단계로 동서연결통로 데크공사 일부를 지난달에 본격 착수해 올해 말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역사는 '대전역세권 마스터플랜계획'에 따라 선상(線上) 역사 증축 상부에 장래 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단계별로 추진 중이다.

대전역사 증축계획의 2단계는 역사증축, 선상 연결통로 및 선상 주차장 조성 부분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시행 중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및 인허가를 거쳐 올해 말 착공, 2016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본부 관계자는 "대전역 증축공사가 완료되면 여객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주말, 공휴일 시간대의 대합실 혼잡도가 대폭 완화되고 여객 편의시설 증설로 이용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 대비 공사현장 안전점검 시행

강원본부(본부장 김영하)는 추석 대수송 기간 열차 운행선의 안전을 위해 지난달 22일, 25일 이틀간 철도운행선 인접공사 현장 6개소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했다.

특별점검에서는 공사현장의 순회점검을 통해 취약개소, 배수로 등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연휴기간 동안 현장근무자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여부를 확인했다.

본부는 최근 16억원을 투입해 영동선 미로~도경리 구간 등 낙석우려가 있는 15개소의 낙석방지공사를 완료했으며 비상사태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추석 대수송 대비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해 시행 중에 있다.

김 본부장은 "관내 철도건설현장은 상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며 "특히 노후된 철도시설물 개량과 낙석우려개소 보강을 위해 2015년에도 81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주~강릉 철도 강릉시 구간 주민설명회

강원본부(본부장 김영하)는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중 강릉시 구간 강릉쪽 연결선이 포함된 11-2공구(제비리~월호평동)의 본격적인 공사 추진을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공사추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열린 것으로 일정은 학산리 19일, 담산동 20일, 여찬리 21일 순으로 진행됐다.

설명회 구간은 4월 말에 설계 추진내용과 토지보상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1차로 개최한바 있으며 본격적인 공사는 지난달 말부터 시행됐다.

본부 관계자는 "원주~강릉 철도건설 중 강릉시 구간 공사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과 지역발전을 위해 2017년 말까지 반드시 완공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헌혈로 사랑을 전하다!

– 최근 6년간 2400여명 임직원 헌혈 참여 –

경영지원실(실장 이계환)은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 혈액원과 함께 지난달 18일 본사에서 헌혈 희망 임직원 70여명이 참여하는 '2014 하절기 사랑 나눔 헌혈행사'를 실시했다.

공단은 2004년 출범 이후 매년 본사 및 5개 지역본부에서 '사랑의 헌혈기간'을 지정, 운영 중이며 헌혈 참석자에게는 사회공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등 헌혈 참여를 독려해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008년 이후 지난 6년간 헌혈에 참여한 임직원은 2434명이었으며 그 중 1600여장의 헌혈증을 기증받아 투석이 필요한 동료 등에게 사용했다. 아울러 생명나눔의 아름다운 약속인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서약한 직원들도 30여명에 달했다.

헌혈에 참여한 직원은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어 뿌듯하고 나의 건강상태까지 무료로 확인할 수 있어 헌혈에 매년 참석하고 있다"며 소감을 밝혔다.

KR소년단과 문화체험 행사 진행

– 어려운 형편의 청소년 초청해 코믹연극 관람 –

경영지원실(실장 이계환)은 지난달 23일 철로변에 거주하고 있는 소외계층 청소년(이하 KR소년단) 및 가족 등 40여명과 함께 대전서구문화원에서 코믹연극을 관람하는 문화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여름방학을 맞아 형편상 자주 접할 수 없는 청소년 및 가족을 대상으로 문화공연을 함께 관람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2010년부터 전국의 철도주변 거주 소외계층 청소년 120명을 대상으로 'KR소년단'을 구성해 장학금 지급, 교복 및 학용품 지원, 문화체험 행사 등을 전개하는 'KR 소년단 희망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현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미래의 희망인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정서적인 지원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청소년들이 사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스톱 김장 나눔 위한 배추심기

– 고추수확 후 배추 심으며 김장 준비 박차 –

경영지원실(실장 이계환)은 KR봉사단원 20명과 함께 지난달 28일 충남 논산 연산면 소재의 1사1촌 결연마을인 황산벌 참살이 마을을 방문, 원스톱 김장 나눔 행사를 위한 김장배추 모종을 심고 텃밭을 정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 원스톱 김장 나눔 행사 : 고추심고 수확(고춧가루) 배추모종 수확 김장하는 원스톱 행사로 김장재료를 직접 심고 가꾸어 수확한 친환경 농산물로 김장하여 선로변 소외이웃 및 소년소녀가장에게 전달하는 공단만의 특화된 행사

이미 고추수확을 마친 봉사단은 배추를 모종하고 마을 텃밭을 일구는 등 일손이 부족한 마을 농가를 위해 손을 보태며 김장 나눔 행사를 위해 박차를 가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직원은 "농사를 직접 지어보니 우리 농산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직접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히며 "올 연말 김장 담그기 활동에도 참여해 나눔의 기쁨을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